

[목회자 모임]  
가장 가까운 사람

2018년 4월 27일 이현래 목사님

대구교회 사랑방에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했는가, 아니면 뛰어내리지 않았는가에 대해 아직도 논란이 있다. 쉬운 일로 생각했고, 이렇게 쉬운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어렵다.

어떤 사람은 전혀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틀렸다는 사람도 있다.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 더 그렇다. 차라리 배우지 않았으면 좋을 것을 뭘 배워놓으니까 지식이 앞서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나는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의 문제였다.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어렵고 안 되는 문제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다.

어떻게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는데, 내가 용서 받을 수가 있는가? 이 문제에서 내 죄란 무엇인가? 이 문제도 있고,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야 할 이유가 나한테는 모르겠더라.

옛날에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소를 잡아서 번제단에 드렸다.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리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되어있다.

원시적인 종교에서는 그런 것이 가능하고, 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것이 많이 있었다.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그런 것이 많다. 심지어는 사람을 잡아서 심장을 꺼내서 신에게 바치는 민족도 있다.

그리고 신을 달래기 위해서 인간의 목숨이 필요하다는 사상들이 우리나라에도 있다. 에밀레 종사건이 그런 것이다. 종을 아무리 만들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아이들을 사다가 용광로에 넣어서 종을 만들어서 종을 칠 때마다 에밀레 에밀레 소리가 난다는 것이다.

또 저희 지방에 가면 간척지가 많아서 간척지의 물이 들락날락하는 원이라는 것이 있다. 거기를 막을 때 역시 사람을 넣었다는 말이 있다. 물소리가 특이하게 나는데, 넌들 넌들 네 탓이라, 넌들 넌들 내 탓이야, 이런 소리가 물이 왔다 갔다 할 때 나는 것이다.

이런 사상이 원시적으로 여러 민족들에게 있는데, 대신 제물을 바쳐서 되었다는 사상이다.

성경에도 가인과 아벨이 맨 먼저 제물을 드렸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가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 나온다.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 많이 나온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제물을 드리는 경우가 있다.

신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드려야 된다, 정성을 드려야 된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런

사상이 다 원시적으로 깔려있다.

그런 사상이라면 사상이 그럴껏지 하고 생각하지만 내가 죄인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십자가의 진리가 아무리 심오하다고 해도 나한테는 효력이 없다. 그것이 아주 고민이었다. 성경을 보고 한 이야기가 아니다.

구속을 받는데 있어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 그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또 신약에 오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이런 말이 수없이 나온다.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이런 사상이 나온다. 바울도 구약의 제사 법전을 인용해서 그렇게 한 말이다. 소아시아 지방에서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그것이 어느 민족에게도 그런 식의 말이 통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나를 생각해보면 그것이 안 된다. 신학교를 다닐 때도 그것이 문제가 되었고, 목회하러 나갔을 때도 문제가 되었다. 확신 있게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십자가의 다른 면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내 죄를 용서하는 면, 나를 구속하는 면은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십자가에서 그것을 빼버리면 다른 말은 하나하나 마찬가지로. 다른 이야기는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이야기다. 굳이 꼭 십자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 문제가 고민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다 고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더 안 된다. 더 반대한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긴가민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으니까 다른 데 가면 얼마나 많겠는가?

우리 교회는 내가 한 말이니까 그냥 받아들이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확실하게 다른 사람에게 가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혹시 여러분도 나 같은 경험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죄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부터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

기독교적으로는 원죄라고 말하는데, 원죄에 대해서는 무엇이 원죄라는 이야기가 별로 없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서 그것이 원죄다. 그런데 선악과가 또 뭔지를 모른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들이 나서서 원죄는 복숭아라고 한 사람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남녀간의 성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왔겠는가? 해답이 없으니까 그런 말이 나왔다.

단지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을 했으니까 고치면 되지

알겠는가? 하지 말라는 것을 굳이 해야 되었느냐는 이유도 있고, 또 그랬더라도 고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또 그런데도 내가 선악과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니까 회개를 해 보았자 별 소용이 없다. 내가 언제 선악과를 먹은 일이 있느냐는 것이다.

아담 안에서 먹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먼 이야기이고, 사실은 나와 관계가 별로 없는 이야기다. 아담이 먹어서 그 죄가 나에게 전가된 것으로 배운다. 아담이 언제적 사람인데 그 잘못이 우리한테까지 유전되어서 나온다는 것이다.

이런 사상 때문에 통일교 같은 곳에서 죄의 유전을 주장했던 것이다. 그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생각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죄가 체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새로운 씨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은 죄가 없다는 것이다.

직접 신자들에게 물어보니 그 사람 아들은 죄가 없느냐고 물으니 아주 당당하게 죄가 없다고 한다. 그 사람은 생리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완전하다. 생각만 가지고 나는 죄가 용서 받았다고 하는 것보다 종자를 바꾸어버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시원한 일인가.

**근원적인 문제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해결을 해도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창세기 2장과 3장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문제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별로 아는 것이 없다.

#### **근원을 모르는데 어떻게 끝을 알겠는가?**

나는 성경 중에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거기서 확실하게 뿌리가 내려져야 그 다음에 다른 것이 정상적으로 해석이 되지 뿌리가 내리지 않고서는 정상적으로 해석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거기서 사람이 어디로 타락을 했는지, 어디로 이탈이 되었는지, 무슨 죄를 졌는지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회개해도 끝이 나지 않는다.

교회만큼 회개를 많이 하는 곳이 어디 있는가? 사람끼리 해결하면 해결될 문제들인데, 사람한테 잘못해놓고 하나님에게 와서 빌고 있다고 해결이 되겠는가?

밀양이라는 영화가 그것을 꼬집고 있다. 학원을 하던 사람이 어떻게 잘못되어서 아이가 죽었다. 아이를 죽게 한 사람은 과실치사라고 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다. 그 엄마가 가슴에 맏혀서 한이 되었다가 이웃 교회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용서해야 된다고 하니까 용서하려고 애를 썼다.

용서하려고 감옥에 갔다. 아기 엄마가 심각하게 용서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감옥에 있던 면회하러 나온 사람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제야 용서를 하느냐고 나는 벌써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는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나온다. 이것을 영화가

꼬집고 있다. 기독교 안에 있는 이런 사정들을 영화를 통해서 꼬집는 것이다.

대개의 문학작품이라는 것이 휴머니즘이기 때문에 인간성을 벗어난 그런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진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놓고 생각해볼 때 하나님의 대책을 아무리 전한다고 하더라도 이 핵심을 벗어나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원인은 이탈이라는 문제이다. 하말티아, 과녁이 빗나갔다, 갈 곳을 가지 않았다는 말인데, 갈 곳이 어디인가도 역시 애매하다. 사람이 어디로 갈 것인데 이탈했는가?**

창세기 1장 말씀을 모르면 애매해진다. 결국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대로 다시 돌아가버리고 만다. 사람은 원래 불완전한 것이다. 이것은 희랍사람들의 생각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불완전하게 지어놓았는가? 하나님은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완전하다는 말이다.

이 개념이 희랍인들이 생각하는 완전하다는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다. 하나님이 보고 심히 좋았다고 하는 그 완전은 목적과 용도와 관계된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체질도 같은 운동선수라도 어떤 사람은 수영하기에 딱 알맞은 체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상 하기에 알맞은 체질이 있다.

체육선생님들은 그런 것을 구분하여 체육을 권장한다. 수영에 맞는 체질을 타고 난 사람에게 육상을 하라고 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수영 체질로서 완전하다. 혹은 수영 체질로서 불완전하다가 되어야지 무조건하고 불완전하다고 할 수가 없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누구는 완전하고 누구는 완전치 않느냐가 아니고, 어떤 용도에 완전하느냐는 이 문제이다.**

사람도 무엇에 완전한가?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좋아하셨는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려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으면 완전한 것이다.

우리는 거기에는 다 완전한 사람들이다. 세상에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완전한 사람들이다. 이 자리에서 불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완전하게 해 놓으셨다. 우리가 우리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불완전하다.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니까 불완전하다.

심지어는 마귀가 사람들을 속일 때, 왜 속았겠는가? 전혀 다른 용도에 내놓고 너는 왜 이 모양이냐고 한 것이다.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내놓고 하나님 아들이거든 만들어보라고 했다. 그러면 사람 중에 돌로 떡을 만들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은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라고 했다. 못 뛰어내린 것인데, 뛰어내릴 수 있었는데 못 뛰어내렸다고 하면 불완전하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이다. 예수님이 왜 못 뛰어내리겠는가? 뛰어내릴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뛰어내리지 않은 것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다.

### **근원부터 빛나갔다. 예수님은 왜 독생자인가? 왜 아들인가? 왜 완전한가?**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뛰어내리니까 완전한가? 아니면 돌로 떡을 만드니까 완전한가? 문제가 전혀 다른 문제이다.

개를 보고 말하라고 하면 말을 하겠는가? 그렇다고 개가 불완전한가? 독일에 가니까 교회 형제님 집에서 시커먼 큰 개를 키운다. 개에게 'Song'하면 노래를 하라고 가르쳤다고 한다. 나는 진짜 노래를 할 줄 알았더니 주인이 'Song'하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개도 'Son~~g'한다. 그것을 보고 개는 정말 불완전하다고 하면 되겠는가? 개는 개로서 완전한 것이 있다.

### **사람을 볼 때도 이 사람은 불완전하고, 저 사람은 완전하다고 볼 수 없다. 어떤 용도에 맞는지 중요하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완전합니다.'라고 하고 있으면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욕을 돌리는 것이다. 내가 너를 완전하게 만들어놓았는데, 네가 왜 불완전하다고 하느냐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이 깨져 버린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놓고 만족하니까 안식하셨다. 그런데 피조물이 와서 '나는 불완전합니다, 나는 불완전합니다.'라고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안식하시겠는가?

부모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다. 효도를 하려면 이 사실을 알면 아주 쉽게 효도할 수 있다.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어느 부모라도 좋아하지 않을 부모가 없다.

왜 나를 이것밖에 가르치지 못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처럼 부모의 가슴을 찌르는 말이 없다. 그런데 부모에게 '나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를 사람으로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면 이것보다 효도가 없다.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 나를 사람으로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백마디 천마디 다른 감사를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을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천마디 만마디 말보다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훨씬 낫다.

### **사람은 결코 불완전하지 않다. 사탄이 속인 것이다.**

돌로 떡을 만드는 자리에 내놓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자리에 내놓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라는 것이다.

영어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한국말은 못한다. 그 사람에게 한국말 시험지를 내놓고 말 잘하면

머리 좋으면 풀어보라고 하면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라도 글자를 모르는데 풀겠는가? 못한다.

### 근본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성경에 생명을 구하는 말이 많지 않다. 신약 요한복음에 보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하였다. 니고데모가 ‘뭘 좀 더 하면 되겠습니까?’하는 의미로 찾아왔는데 동문서답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3:3).”고 대답했다. 나기를 다시 나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나는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 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요3:4).”하고 물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요3:6).”라고 하니깐 그 말을 듣고 더 못 알아 듣게 되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요3:8).”고 했다. 더 못 알아 들었다. 그래서 방언을 하거나 휘파람을 분다거나 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었다.

R.A.토레이가 쓴 <성령론>이라는 책을 읽어 보았다. 이려고 저려고 말이 많아 지루하지만 그래도 결론을 알고 싶어서 끝까지 보았는데, 끝까지 봐도 답이 없다. 바람이 부는 것 같기도 하고 자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소리를 해 놓았다. 성령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내가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지 않았다.

나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데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다. 열등감도 많이 가져 보았다. 그 다음 대답이 확실히 있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3,14,16).”**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한다. C.C.C.에 가니까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한다.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것도 또 애매하다.

엑스플로74때 특이한 사건이 있었다. 그때 여의도 조\*기 목사가 책임을 맡은 적이 있어서 대회장에서 설교를 한 적도 있다. 내가 직접 들은 말은 아니고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C.C.C.에서는 성령충만을 받는다고 하는데 뭘 가지고 성령충만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는 말이 있다. 자기들은 성령 받는 것이 이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믿으니깐 받은 것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것도 참 애매한 일이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장대에 뱀을 달았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것은 감추어져 버리고 믿음이라는 것만 내놓았다.

우리는 어디서 거듭나는가? 십자가에서 거듭나야 된다. 거기서 다시 나야지 다른 데서는 다시 날 데가 없다. 거듭난다는 것도 이제 알고 보니까 여기에 감추어져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바울의 경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후5:17).”고 했다. 새 피조물이라야 된다는 말이다. 그러면 새로 지음 받아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새로 지음을 받는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새로 지음을 받을 수가 없다.**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이 뛰어내리지 않고서는 다시 날 수가 없다. 그것은 부활이 아니다.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났다면 이것은 부활이 아니다. 뛰어내릴 수 없는 사람이 살아난 것이 부활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역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있을 수가 없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롬6:4).”는 말이 로마서에 나오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라는 말을 하면서 이 말이 나왔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롬6:4).”

전부가 생명에 관한 문제이다. 구속은 생명에 관한 문제이다.

**왜 구속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속이 필요하다.**

그런데 누가 나를 구속할 것인가? 당연히 교리적으로는 예수가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한다.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나의 구속자라고 한다. 신약에서는 예수가 나의 구속자라는 말이다.

**예수가 왜 나의 구속자가 되는가?**

엣그제 생각을 하다가 참 재미있는 생각이 났다. 누가 나를 구속하는가? 나를 구속하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야 한다.

룻기에 보면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된다. 나오미가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일을 시킨다. 거기서 보아스가 룻을 귀하게 생각했다. 내가 너의 소문을 다 들었다. 젊은 네가 시어머니를 따라 온 것도 귀하지만 나같이 늙은 사람을 찾아와서 은혜를 구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하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싶지만 너에게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 가까운 친척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가 포기한다고 하면 내가 기업을 물려주겠다고 말한다.

기업을 물려준다는 말과 구속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왜 기업을 물려준다는 말이 나왔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파별로 들어갔다. 지파별로 점령한 것이 곧 그 지파의 땅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경계선을 갖게 되었다. 언제든지 변경할 수가 없다. 내가 만일 어떤 사정이 있어서 땅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7년이면 다시 땅을 되돌려 받을 수가 있다. 또 희년인 50년이 되면 전부를 다 돌려받을 수 있다. 아주 특이한 법이다.

왜 그런가? 그 기업은 바꿀 수 없고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점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것이 희년의 법칙이다. 항상 유다 지파의 땅은 영원히 유다 지파의 땅으로 있는 것이다. 어떤 사정이 있어서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람이 종으로 팔려갔다거나 딸이 팔려갔을 때, 그것을 찾아주어야 할 의무가 누구한테 있는가?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있다. 또 여자가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기 기업이 없어진다.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여자에게 없기 때문에 여자는 다시 남편을 만나야 된다.

이것이 기업을 물려준다는 뜻이다. 다시 남편을 만나면 그 땅을 찾지만 다시 남편을 없으면 그 땅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보아스를 찾아간 것이다. 당신이 내 기업을 사달라고 했다. 보아스가 하는 말이 내가 사주고 싶지만 너에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포기 하겠다고 하면 내가 사주겠다고 하여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이새의 어머니가 되고 다윗왕의 할머니가 되었다.

### **기업을 물려받을 자, 구속자는 누구인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야 된다.**

나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보았더니 예수는 예수인데, 그 동안 너무 멀어서 내가 구속을 받을 수가 없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예수가 필요할 때가 있다.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해산되게 되었으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가 필요하다. 사람이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면 사람을 살려주는 예수가 필요하다. 베세다 광야에서 굶주리게 되면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는 예수가 필요하다. 다 필요하다. 다 의미가 있다.

그런데 나를 구속하려면 나와 가장 가까워야 되는데, 어디서 가까운 데가 있는가? 예수님 생애에서 예수님이라는 부분에서 어디서 나와 가까운 그분을 만나는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참 좋은 내 친구’라고 노래를 가르치지만 커서 말씀을 듣다 보면 ‘참 좋은 내 친구’가 아니고 너무나 먼 당신이 되고 만다.

여러분은 어떤가?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너무나 먼 당신이 된다.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는 분과 어떻게 참 좋은 친구가 되겠는가? 심지어 겿세마네 동산까지 가도 그런 분에게 감히 친구라고 할 수가 없다.

**“내가 민망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이 자리에 참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진다면 거기에 참여가 되겠는가? 우리가 억지로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박히지만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죽겠다 하고 못 박으라고 하면 내놓아지겠는가?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렸더라면 영원히 내 구속자를 만나지 못할 뻔했다. 그런데 모



든 사람이 뛰어내리라고 했다. 심지어는 같이 못 박힌 왼편 강도도 하나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라,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했다. 또 군중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야유하는 말이었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한 번 뛰어내려 보라고 했다.

진실로 뛰어내리기를 바랐던 사람들은 제자들이다. 그들은 속으로 얼마나 가슴을 저렸겠는가? 아무리 저렇지만 뛰어내리기만 하면 세상이 뒤집힐 텐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겠는가? ‘뛰어내리십시오, 뛰어내리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아들입니다. 뛰어내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겠다고 했던 사람들이다. 가장 간절하게 바라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다.

그런데 결국 뛰어내리지 못했으니까 죽었다. 뛰어내릴 수 있었으면 왜 죽었겠는가? 그런데 거기에 나를 구원할 자리가 있을 줄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그 자리에 내가 그분과 하나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어디를 가도 그분과 하나될 자리가 없다. 그분을 만날 자리가 없다. 만나봐야 헛껍데기를 만나는 것이지 진정으로 그분을 만날 수가 없다. 모든 것이 다른데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겠는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눈으로만 보는 것이지 만난 것이 아니다.

떡을 얻어 먹었어도 만난 것이 아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해서 만난 것이 아니다. 살아난 후에는 천만리 멀어져 버린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예수라는 것을 알았다.** 나를 구속한 구속자, 기업으로 물려줄 자는 예수밖에 없구나. 이 귀중한 것을 십자가에서 빼버리고 다른 것만 내놓고 있다. 나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없으면 십자가가 아니라도 될 일은 얼마든지 많다. 사랑도 할 수 있고, 희생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내용은 다 알고 있었지만 엇그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속으로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내가 가장 친한 사람이 예수구나. 나는 이제 어디 가면 그렇게 말할 것이다. 나와 가장 친한 사람이 예수라고~! 누가 혹시나 그 말을 물어주면 제일 좋겠다.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쏠살같이 대답하겠다.

친한 친구들이 몇 명 있었다. 그런데 죽고 겨우 한 명이 남아있다. 친하기는 친하지만 그분들이 나의 구속자가 될 수는 없다. 친하게 지내지만 그렇다고 내 구속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사람이 나의 구속자다. 나를 원위치로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창조해주신 그 자리로 나를 회복주실 분이다.** 그것은 가까운 친척이라야 된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야 된다.

보아스도 룿이 너무너무 귀여웠다. 룿이 모압 땅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 하는 행동을 보고 얼마

나 귀여웠겠는가? 제일 나이 많은 노인인데 젊은 여자가 와서 옆드려서 간구하는 것이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이런 여자를 어떻게 만나겠는가? 그래도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기 때문에 그가 너를 포기하면 내가 너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가 되어주겠다고 말했다. 가장 가까운 자가 아니면 나의 기업을 물려줄 자가 될 수 없다.

베세다 광야에 있던 분은 나와 가까운 분이 아니다. 나사로를 살린 분은 나와 가까운 친척이 아니다. 가나의 혼인집에 있던 분은 나와 가까운 분이 아니다. 다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나를 구속할 만큼 가깝지는 못하다는 말이다.

내 안에 포도주가 되신 분, 나면서부터 소경된 나에게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다 있지만 나를 구속할 자는 안 된다. 거기서 내가 구속 받을 수는 없다. 나를 대신 할 자리가 못 된다.

그리고 나도 그분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아무리 그분이 나를 부른다고 하더라도 가보면 거기에는 내가 없다. 완전히 남의 집이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아무리 친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

개와 고양이가 아무리 친해도 진짜로 친한 것은 아니다. 어려서부터 같이 키우면 친해 지기는 친해 지는데, 아무리 친해도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이다.

예수님은 나에게 여러 면으로 필요한 분이다. 내 인생의 잔치를 위해서 필요한 분이고, 내 인생의 눈을 위해서 필요한 분이다. 정말로 귀중하게 필요한 분이다. 그러나 나의 구속자는 되지 못한다. 뛰어내리지 못하지만 그분이 나와 가장 가까운 분이다. 가장 친한 분이다.

사람들은 구속을 생각하지 않고 통째로 예수를 받아들이려고 생각하니까 자꾸 거리킨다고 한다. 예수님이 뛰어내리지 못한다는 것이 찻찻한 모양이다. 확실하지 않은 모양이다.

이 사실이 가려져 있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썼다.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다 틀렸다고 한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하는 말이다. 맞다. 아무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신학도 공부한 사람이다. 그가 아는 것이 그렇구나.

이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은 것이구나. 나는 대강 아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았다.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한다.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뛰어내릴 수 있는 분을 보고 뛰어내리지 못한다고 한 것이 아니다. 나는 뛰어내리지 못한 분을 보고 뛰어내릴 수 없다고 한 것뿐이다. 돌로 떡을 만들지 않는 분을 가지고 나는 돌로 떡을 만들지 못한 분이라고 한 차이밖에는 없다. 왜 그것이 필요한가? 내 구속을 위해서, 나의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필요하다.

나는 그 전에도 내 친구였겠지만 이번에 진짜로 예수는 내 친구다. 가장 가까운 친구다. 친구가 아니고 내 친척이다. 내 기업을 물려 줄 수 있는 친척인 것을 알게 되었다. 말이 다르겠지만 더 쉽게 말할 수 있다.

**예수는 나와 무슨 관계인가? 나의 기업을 물려줄 자다. 나를 구속해 줄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었다.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면 이런 이유 때문에 살려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한다. 쓸모가 없으면 데려 갈 것이다. 아직은 쓸모가 있으니까 놔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깊이 알아서 만민의 주가 될 수 있도록, 누구한테도 주가 될 수 있도록, 잘 믿는 사람에게만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나 주가 될 수 있도록~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대로 **아무도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다 알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게 알아져야 된다. 믿는 사람은 천당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해서 안 된다. 그렇다고 안 믿는 사람이 천당 간다고 해도 안 된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길이 있어야 들어갈 것이다.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은 동서남북으로 3개씩 12문이다. 거기엔 문은 있는데 문을 닫았다는 말은 없다. 항상 열려 있는 문이다. 사방에 어떤 조건 하에 있는 사람도 다 들어올 수 있는 성이라는 뜻이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계22:20).”** 이것이 무슨 말인가?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내게 당신을 알려달라는 말이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이 내게로 오시지 않으면 내가 그분을 알 길이 없다. 그분이 나에게 와야 그분이 알아진다.

나는 예수를 알려고 노력하지 못했다. 어떻게 노력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노력하겠는가? 그런데 가까이 오시니까 쉽게 알아진다. 오시면 그냥 알아진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조금 더 가까이 와 주십시오. 조금 더 친근히 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소원이다. 조금 더 가까이 와 주십시오. 더 알기 쉽게 와 주십시오. 만민의 주가 되도록, 모든 데에 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와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

잘 됐는지 모르겠다. 늘 똑 같은 말을 들으니까 좀 이상한가. 늘 똑 같은 말을 하는 데도 나는 너무너무 재미있다. 이상하다. 바울이 말했다. 나한테 수고로움이 없다고 했다. 참 이상한 일이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